

카네마츠상사는 1990년대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업 규모를 3분의1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경영은 회복했지만 종합상사의 간판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카네마츠상사는 바이어가스 사업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중이다.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온라인, 각 사 홈페이지 등

클린 디젤 차량 투입 서두르는 일본 자동차업계

닛산, 업계 최초 상품화

닛산 자동차는 9월 4일, '포스트 신 장기규제 (2009년 배출가스규제의 정식명칭)' 대응 클린 디젤 차량 '엑스 트레일(X-TRAIL) 20GT'를 18일에 발매할 것을 발표하였다. '클린 디젤'의 명칭은 배기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향상한 디젤엔진인 점을 강조한 합성어이다.

9월18일 발매예정인 클린디젤차량 닛산 X-Trail



출처: 닛산자동차 홈페이지

당초 2010년에 발매할 예정이었지만, 이산화탄소 삭감 등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2년 앞서 업계최초의 상품화를 실현하였다. HV 등 에코카 부문에서의 부진을 따라잡으려는 생각에서다. 북해도나 토호쿠 등 일상 주행거리가 긴 지역에 중점을 두고, 월 1,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며, 가격은 299만엔 정도로 동급사양의 가솔린 차량보다 45만엔 전후 비싸다.

닛산이 프랑스 르노와 개발한 클린 디젤엔진 'M9R'을 기본으로 일정 촉매를 추가하여 규제기준을 통과하였다.

이어지는 디젤승용차 발매, 2009년부터는 구입보조금 지원도

닛산자동차는 9월 18일, 혼다는 2009년, 미츠비시 자동차는 2009년 여름, 후지중공업도 2010년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2009년 배출가스규제 대응 모델을 출시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2009년도 예산요구안에서 '2009년 배출가스 규제 대응 디젤차 구입보조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 규제 대응 디젤차의 일본내 판매전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여, 닛산의 신차 발표에 도요타자동차는 '유럽과 같이 디젤차의 수요가 높지 않으며, 현재 클린 디젤 차량 출시 계획은 없음' 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일본 내 승용 디젤차의 보급율은 2005년 0.04%으로, 정점이었던 95년, 96년에도 10% 정도로 평균 50%를 넘는 유럽과는 수요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신호등에 의한 정지, 발진이 극히 적고, 디젤의 특징인 계속 주행에 의한 저연비를 끌어내기 쉬운데 비해, 신호등이 많은 일본, 특히 도심에서는 이런 저연비를 실현하기 어렵다. 또, 일본에서는 배기가스의 입자물질 규제 도입이 늦어서, 오염을 줄이는 저유황 경유 도입도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디젤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다.

현재는 고유가로 가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에 있지만, 디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교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최대 과제는 차량가격이며, 국가 구입보조금제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금번 예산요구안에서는, 전기자동차 (EV) 등에 적용하는 방식인,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차의 최대 절반을 보조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연료정제시에 발생하는 경유와 가솔린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삭감에 유효하다' 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메이커는 개발 여력이 있어도,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독일 자동차메이커 일본에 디젤차 투입전략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는 적극적으로 투입추진 중이나, BMW는 일본 국내 수요 등의 이유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우디재팬은 올해 하반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초대비 경기변화 등의 원인으로 대응이 주목되고 있으며, 폭스바겐그룹재팬은 2009년 도입예정이고, 벤츠재팬은 2008년내에 디젤 SUV를 출시 예정이다.

<자료원> 아사히신문, 유니치신문, 일간공업신문, 닛산자동차 홈페이지 등